

- 주요 뉴스: 미국 1월 방산업 고용 크게 확대 연준의 통화긴축 완화 기대 감소
 - EU, 러시아산 정유 제품에 가격상한제 추가 시행
 - UN 식량농업기구, 세계 식량가격 10개월 연속 하락
 - IMF, 중국은 확장적 경제정책을 당분간 유지할 필요
 - 국제금융시장: 미국 고용지표 개선에 따른 금리인상 우려에 위험자산 선호 약화
주가 하락[-1.0%], 달러화 강세[+1.2%], 금리 상승[13bp]
 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애플, 아마존 등 빅테크 실적 부진 영향으로 하락
유로 Stoxx600지수는 파운드화 가치 절하에 따른 수출 개선 기대감에 상승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실업률 하락 등 고용 안정 영향으로 상승
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1.1%, 2.0% 절하
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준의 금리인상 기조 장기화 가능성을 반영
독일은 ECB가 5월까지 금리 인상을 지속할 것이란 우려에 11bp 상승
- ※ 원/달러 1M NDF환율(1247.2원, +19.1원) 1.5% 상승, 한국 CDS 상승

		2/3일	2/2일	전일대비			2/3일	2/2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4,136.5	4,179.8	-1.04%	국채 금리 10y	미국	3.52%	3.39%	13bp
	유럽	460.77	459.20	0.34%		독일	2.19%	2.08%	11bp
	중국	3,263.4	3,285.7	-0.68%		영국	3.06%	3.01%	5bp
	일본	27,509	27,402	0.39%		CDS 5y	한국	40bp	39bp
	한국	2,480.4	2,468.9	0.47%	위험 지표	중국	50bp	49bp	1bp
환율	달러지수	102.99	101.75	1.22%		EMBI+	-	441	-
	유로화	1.0795	1.0910	-1.05%		VIX	18.33	18.73	-2.14%
	엔화	131.19	128.68	-1.95%		WTI유	73.19	75.88	-3.55%
	위안화	6.7980	6.7311	-0.99%	원자재	구리	403.2	409.1	-1.45%
	원화	1,229.4	1,220.3	-0.74%		금	1,865.0	1,912.7	-2.50%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미국 1월 비농업 고용 큰 폭으로 확대, 연준의 통화긴축 완화 기대 감소

- 미국 1월 비농업 일자리는 51.7만개 증가해 예상치 18.8만개를 크게 상회했으며 실업률은 3.4%로 전월(3.5%) 대비 하락하면서 54년래 최저를 기록. 시간당 평균 임금은 0.3% 상승해 전월 및 예상치와 동일
-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낮은 실업률은 우리의 경제 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의미로 지난 2년간 역사적으로 가장 강한 고용을 이루었다고 평가. 또한 인플레이션이 압력이 완화되면서 실질 임금은 상승하고 있다고 발언
- 샌프란시스코 연준의 데일리 총재는 고용지표 발표 직후, 최종금리가 5.1%를 상회해야 한다면, 필요한 경우 그 이상으로 금리를 높일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
- 시장에서도 고용 호조로 인해 연준의 금리인상 기조가 지속될 수 있다고 분석. 연준이 노동시장 불균형 장기화를 우려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할 가능성(Fitch의 Brian Coulton). 강력한 고용 상황으로 노동시장 과열 진정을 위한 연준의 목표 달성이 늦어지는 상황(Glassdoor의 Daniel Zhao)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EU, 러시아산 정유 제품에 가격상한제 추가 시행

- 유럽연합과 주요 7개국(G7)이 러시아에 대한 가격상한제를 2.5일부터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. 경유는 배럴당 100달러, 중유 등은 배럴당 45달러 상한선을 적용
- EU 폰테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번 조치가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효과적으로 러시아의 전쟁 자금 조달을 압박할 수 있다고 설명

■ UN 식량농업기구, 세계 식량가격 10개월 연속 하락

- 1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31.2로 전월(132.2) 대비 하락하면서 '21.9월 이래 최저를 기록. 식물성 기름, 유제품 등의 가격이 하락한 반면, 곡물과 육류 가격은 대체로 안정세를 보임. 다만 올해는 높은 비료 가격이 밀 재배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중국을 중심으로 쌀 생산량도 예상보다 감소할 가능성

■ IMF, 중국은 확장적 경제정책을 당분간 유지할 필요

- IMF는 기자회견에서 금년 중국 성장률이 제로 코로나 정책 폐지 등에 힘입어 작년 3.0%보다 높은 5.2%에 달하겠으나, 경기 회복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재정 및 통화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. 특히 작년부터 제공한 지원 프로그램이 만료되더라도 소비 진작 등을 위한 지원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
- IMF의 토마스 헬블링 아태지역 부국장은 중국의 인프라 투자 효율성이 과거에 비해 저하되었다면서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도 필요하다고 첨언

■ 우크라이나 지원국, IMF에 140~160억달러 규모 차관 요청

- 우크라이나 지원국 관료들이 2월 중순 IMF와 140~160억달러 규모에 달하는 대출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, 지원 협상을 금년 봄까지 마무리할 계획. IMF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

■ BMW, 멕시코에 전기차 생산을 위해 8억유로 투자할 계획

- BMW는 고전압 배터리와 전기차 모델 Neue Klasse 생산을 위해 멕시코에 8억 유로를 투자하기로 결정. 금번 투자는 약 1천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전망

■ 유로존 1월 종합 PMI, 확장세로 전환하면서 7개월래 최고치

- 유로존 1월 S&P Global 종합 PMI는 50.3으로 전월 49.3대비 상승하면서 작년 6월 이래 최고치. S&P는 기업생산이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유로존이 금년 1분기 경기회복을 나타낼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

■ 중국 1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, 5개월 만에 확장 국면으로 전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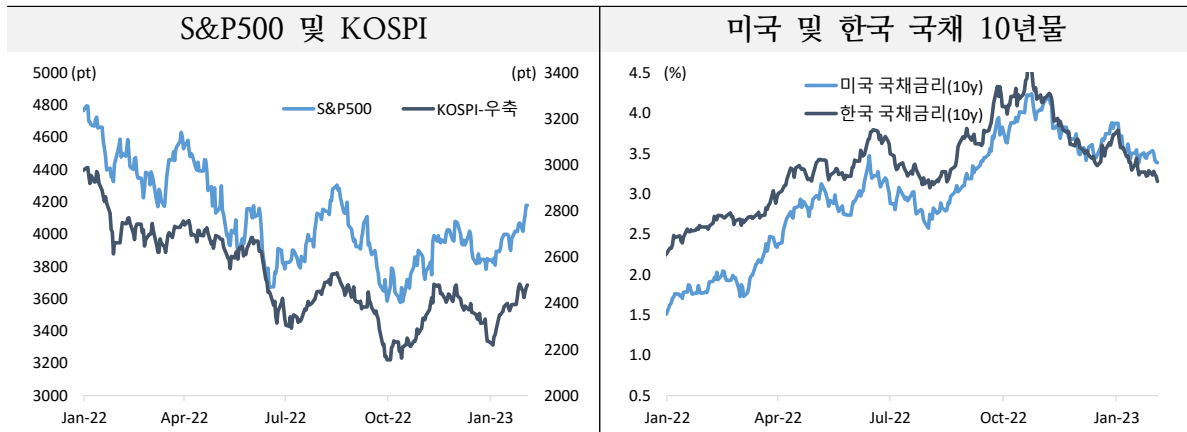
- 1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는 52.9로 전월 48.0 대비 크게 반등해 기준선 50을 상회. 조사 기업들은 이동제한 완화 조치로 경영 기대감 및 신규 주문이 개선되었다고 설명. 앞서 발표한 1월 제조업 PMI는 소폭 상승했으나 기준선은 하회

주요 경제지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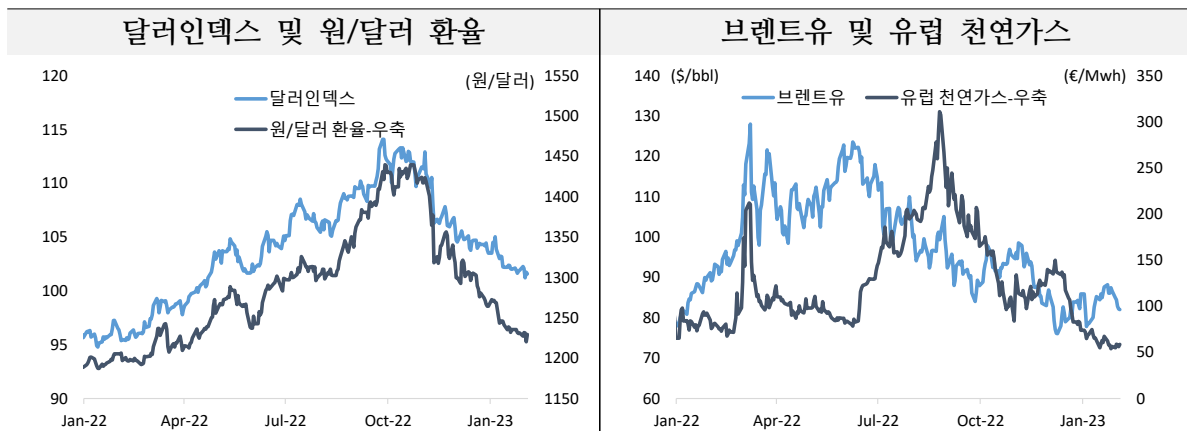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2/3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1월 ISM 서비스 PMI: 55.2, 12월(49.2) 예상치(50.5)
- 유로존 12월 생산자물가(전월대비): 1.1%, 11월(-0.9%) 예상치(-0.4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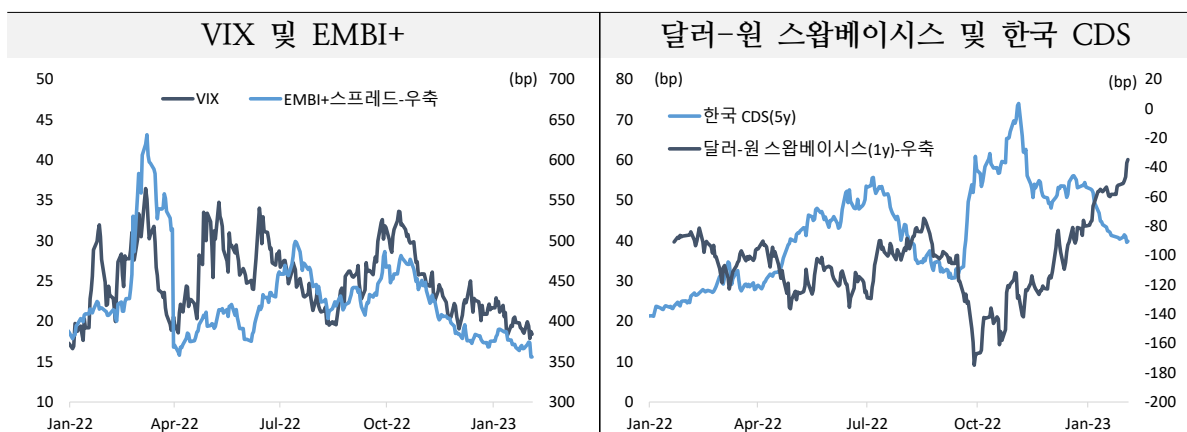
금융시장 주요 지표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31, E-mail jgbaek@kcif.or.kr